

회사 중역도 ‘위험하면 노조에 연락해라’, 보람 있었죠.

- 김두형 회원을 만나다

임용현 상임활동가

‘회원 이어말하기’ 여섯 번째 주자로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김두형이라고 합니다. 노조(금속노조 경기지부) 활동은 2018년 11월부터 시작했고, 노동안전을 맡은 지는 이제 2년 반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총무부장으로 들어와서 그다음 조직부장으로 있다가 2024년부터 노안을 맡게 됐어요.

어떤 계기로 연구소 회원이 되었나요?

사실 노안 담당 초기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할 뿐이었어요. 그때 노안 활동을 꽤 오랫동안 이어오셨던 현장 간부님 한 분이 어느 날 제게 손진우 소장님 연락처를 건네면서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라’고 조언해주셨어요. 같은 건물 1층에 연구소 경기 사무실이 있는데도, 제가 노안 업무를 담당하기 전까지는 연구소 활동가들과 가깝게 소

통할 일은 없어서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러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저도 모르게 찾아가게 되더라고요(웃음).

아시다시피 현장에서는 문의 사항이나 사업장 현안이 생기면 지부에 바로 연락하잖아요. 노안 활동 초반엔 아예 솔직하게 답변드렸어요. 제가 잘 모르는 사안이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요. 모르는 걸 아는 척 둘러댈 순 없으니까요. 그러고는 노안 활동 경험이 풍부한 선배 활동가들께 곧장 연락해 자문을 구했죠. 다행히 연구소가 노조랑 한 지붕 이웃이라서 소장님이 안식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즈음부터 질문이나 고민거리가 생길 때마다 찾아갔거든요. 연구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일이 부쩍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회원이 된 것 같습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에서 노동안전보건국장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작년에 경기지역에 있는 한 금속제조업 사업장에서 노사공동 위험성평가를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노안 활동을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이라 소장님께 조언도 구하고 연구소에서 참여한 보고서도 찾아보면서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의 상을 조금씩 그려나갔던 시기였어요. 마침, 이 사업장의 노안 간부님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해 온 위험성평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셨고요. 저와 그 간부님은 일단 재작년에 실시한 위험성평가 내용부터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보았더니 위험성평가 조사 내용이 우려했던 대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파손된 바닥을 메워야 한다’, ‘배선이 어지러우니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식인 거죠. 물론 이런 조치들도 필요한데, 문제는 그게 전부라는 거였어요. 지회에서 먼저, 위험성평가가 취지에 맞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자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노사가 각각 별도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해서 절충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지회 주도로 위험성평가가 진행됐어요. 이 사업장에서 지회 주관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게 사실상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장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잘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전에 연구소가 대한이연지회와 함께 진행한 위험성평가 설문조사표를 본 적이 있었는데, 팔십몇 개짜리 문항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처음엔 소장님이 옆에서 뜯어말렸죠. 조합원들한테 설문지 배포하고

빠짐없이 작성하게 독려하고, 또 나중에 설문 분석까지 하려면 상당한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니까요. 솔직히 그때 저도 잘 몰라서 용감했던 것 같아요. 결국 사업장 현황에 맞게 한번 제대로 해보기로 의기투합했고, 설문 응답률도 200명이 넘는 현장에서 180명 가량 받았으니까 나름 성공적이었죠. 위험성평가 준비부터 실행까지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지회 노안 담당 간부님이 없었다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자문 역할에 조합원 교육까지 애써주신 소장님께도 너무 감사하죠! 최종 설명회에 회사 중역까지 참석해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노조에 연락해 달라’고 우리 조합원들에게 당부한 것도, 나중에 회사 보건 담당자가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보자’라며 지회 노안 담당 간부님께 문자를 보내온 것도 뜻밖의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올해로 2년째 한노보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운영위원 활동하시면 느꼈던 소회도 들려주세요.

글쎄요. 일단 지금은 영어유치원 다니는 다섯 살 꼬마가 된 심정이랄까요. 처음에 운영위원 제안받았을 때 사실 못 하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노조에서 노안 담당 갖 일년 차였으니까요. ‘아직 연구소도 제대로 모르는데 운영위원이라는 중책을 내가 맡아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운영위원을 하겠다고 마음을 바꾼 이유는, 연구소 활동에 좀 더 긴밀히 함께하면서 저도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겠



▲ 2025.11.29. 2025 보듬는학교;열매과정에 참여해 조별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김두형 회원. 사진 : 한노보연

다는 기대 때문이에요. 좀 더 투명하게 말씀드리면,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얻는 게 제가 속한 조직의 사업장 노안 담당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란 마음이 사실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보듬는학교-새싹과정’이 경기지역 노안 활동가들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 진보정당 활동가들까지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같이 준비하셨는데요. 이번 새싹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특히 초점을 둔 부분은 새싹과정 첫 번째 프로그램 ‘위험 카드 토론 : 일터의 위험을 함께 찾고, 연대를 통해 대책 수립하기’였어요. 저는 노안 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어떤 이론이나 지식 그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작업장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살피는 감각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위험이

있다면, 다른 동료의 시야와 경험을 통해 함께 찾아낼 수 있어요. 위험을 찾아내면, 개선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꼭 재해 대응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현장 활동에도 적용해야 할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서는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도 조합원들과 함께라면 더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지요.

연구소는 올해 현장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노동 안전보건활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현장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김두형 동지가 생각하는 ‘현장 중심의 노동안전 보건활동’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는 다들 노안 담당하는 간부님들이 계시잖아요. 지금은 이분들이 산재 신청처럼 사후적인 대응을 중심으로 활동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러한 현안 중심으로 사업장 노안 활동이 굴러가



▲ 2026.4.1. '기억하라 투쟁하라! 4.28 산재노동자의 날! 4월 건강권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두형 회원의 모습.
사진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는 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지부 사업계획 중 하나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해보자는 거예요. 반복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조 차원의 예방적 개입을 꾸준히 시도하자는 취지거든요. 예를 들어 위험성평가 할 때 이번에는 노조가 주도력을 발휘한다든지 좀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는 활동에도 힘을 모으려고 해요. 다만 이런 활동이 현장 간부들만의 활동으로 좁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활동은 굉장히 능동적인 역할과 태도가 필요한 거 같아요. 당연히 어느 한두 사람만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조직적으로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게 안전보건 활동을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장활동가 네트워크에서 고민하는 중심 내용이고, 앞으로 길을 잘 열어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연구소에 바라는 점이나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경기지부에 65개 사업장이 속해있어요. 사업장마다 노안 활동에서 편차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노동자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각자 여건이 다르니까요. 어쩌면 ‘우리 현장에서는 죽거나 다치는 사람도 없는데, 구태여 한 단계 진전된 노안 활동까지 고민해야 하나’며 부담스럽게 여길 수도 있겠고요. 한 걸음 더 내디디려면 교육이든 현장 점검이든 결국 마음과 시간을 내야만 하니까요. 속도는 다름지언정 같은 방향을 보고 차근차근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선례를 남겨서 다른 현장에도 자극과 활력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모범적인 사업장 노안 활동이 경기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연구소 동지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